

“백마고지, 매일이 지옥... 전우 시신 넘어 또 돌격”

6·25 75주년... 참전유공자 강이원씨

19살에 나라 지키려고 자원 입대 고지 점령하고 뺏기고 매일 반복 50년 넘게 봉사활동·장학금 전달 “후손들 참전 유공자 잊지 않길”

“숨이 멎을 만큼 긴장이 됐지만 농담도 할 수 없었어. 그저 전우가 쓰러지면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돌격해야 했지.”

6·25 전쟁 75주년을 맞는 25일, 참전유공자이자 6·25참전유공자회 장성군지회장인 강이원(91)씨는 지난 1953년 5월 치열했던 철원의 백마고지 전투를 떠올리며 인상을 찌푸렸다.

강씨는 1950년 6·25전쟁이 발발 후 2년 뒤인 1952년 19살의 어린 나이로 자원 입대했다.

친구들이 ‘가면 무조건 죽는다’고 말했다지만 가족이 인민군에게 죽임을 당했던

아픈 기억이 있던 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제주도로 이동해 4개월간 훈련을 받고 22사단 67연대 소속으로 최일선인 철원 백마고지에 투입됐다. 강씨는 백마고지 전투를 한 단어, ‘하루살이’로 표현했다.

강씨는 “최일선에 참여해 웃을 새도 없고 고지를 점령하면 뺏기고 다음날 다시 점령하고를 반복했다. 사방에서 포탄과 총알이 빗발치고 전우가 쓰러져도 놔두고 그저 앞으로 돌격했다”면서 “고지를 한 번 내려갔다 올 때마다 소대원 절반이 사라졌다. 지옥이나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소쿠리에 있던 작은 주먹밥으로 끼니를 때웠다. 인민군뿐만이 아닌 배고픔과도 사투를 벌였다”며 “매일, 매순간, 전우들의 시체를 넘었고 슬픔을 느낄 새도 없이 다시 총을 쏘아댔다”고 회고했다.

강씨는 좌측 대퇴부에 관통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서야 백마고지에서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강이원 6·25참전유공자회 장성군지회장. 장성군 제공

강씨는 “총상을 입고 정신을 잃던 순간에도 바로 옆에서 가슴에 피를 흘리며 쓰러진 전우가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면서

“당시 너무 정신이 없어 내가 다리에 총을 맞고 쓰러진지도 몰랐지만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나야 운이 좋아 용케도 병원에 계속 남아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병원에 있던 다른 이들은 치료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퇴원해 다시 전장에 투입되기도 했다”며 “6·25전쟁은 매일이 지옥같은 하루였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50여년간 호국보훈활동을 이어왔다. 광주·전남 지역 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 6·25전쟁 알리기 교육 등 꾸준히 봉사활동을 실천하며 지역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그는 “광주에서 중학교를 2년 다니다 그만뒀던 기억이 있다. 나처럼 배움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 등을 전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씨의 바람은 후손들이 6·25참전 유공자들을 잊지 않는 것이다.

강씨는 “참전영웅들과 당시 훈련했던 제주도에 갔더니 6·25 묘자를 보고 서울에서 관광 온 사람들이 우리들 덕분에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다 났다”며 “30여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박수와 함께 고마움을 표현하자 가슴이 뭉클하고 정말 보람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나를 비롯해 참전유공자들이 다 나이가 들었고 숫자도 얼마 남지 않았다. 우리가 바라는 건 후손들이 우리를 잊지 않고 그저 감사하다는 말이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강씨는 75년전 당시를 떠올리며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참혹하고 비극적인 전쟁을 직접 겪어보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뿐이다”며 “이념의 갈등 앞에서 목숨을 잃고 양쪽이 피해만 가득한 일이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복합재난 막상 마주하니 소방관밖에 안보였다”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 참가해보니 광주기관·단체 등 220여명 참여 화재·가스누출 등 복합재난 가정

“화재 발생, 화재 발생, 건물 내 모든 사람들은 신속히 밖으로 대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북부소방서가 25일 지진 발생으로 건물 일부 붕괴 및 화재 발생, 가스누출 등의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각종 재난발생 시 긴급구조기관의 재난대응 역량강화 및 긴급구조지원기관 간 상호협력 대응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북구 북서쪽 8km에서 리히터 규모 5.9 지진 발생으로 건물 일부가 붕괴되고,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다수의 인원이 건물 내부에 고립된 상황으로 구성됐다.

25일 오전 북구 광주비엔날레, 덩고 습한 날씨도 소방대원들의 실전을 방해케하는 훈련을 막을 수 없었다. 1시간30분 동안의 훈련은 종료될 때까지 실제 재난 현장같은 긴장감 속에서 진행됐다.

훈련이 시작되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소방차가 도착했고 건물 안의 시민들은 “불이야”를 외치며 구조대원의 안내에 따라 대피하기 시작했다. 동시에 펌프차는 화재 진입, 굴절차는 옥상에 고립된 이들을 구조하는 등 진입·구조가 신속히 이뤄졌다. 실제 상황과 다름 없는 북부소방서의 훈련 모습에 지나가던 시민들은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이모씨는 “영화에서나 보던 상황들이 눈 앞에서 벌어지는 데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훈련에 시민으로서 든든하다”며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뻘뻘 흘리며 뛰는 구조대원들이 대단하다”고 말했다.

이날 훈련은 복합 재난 상황에 맞춰 불

법주정차 차량으로 소방차 진입의 지연, 여진 발생, 구조대원의 고립 상황 등 돌발 상황들이 부여됐다. 종합지휘센터에서는 끊임없이 브리핑이 이어졌고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으며 각 상황들을 대응했다.

훈련에 참여한 신재호(57)씨는 “실제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다. 시민들도 실제 상황이 닥쳤을 때를 대비해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동시에 재난이 터지니 소방관 밖에는 보이지 않았다”며 “소방공무원들이 열정적으로 훈련에 임하고 노련한 경험이 느껴졌다”고 소감을 말했다.

5년차 구조대원 김홍규(39) 소방장은 “시민들을 구조하기 위해 재난 현장에서 대응력을 키우고 대원들이 맡은 임무가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며 “모든 대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재난이나 화재가



광주 북부소방서 소방대원들이 25일 광주광역시 북구 비엔날레에서 가스 누출에 대응하는 2025 긴급구조종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발생했을 때는 언제든지 소방관들이 구조를 하러가니 걱정하지 마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훈련에는 장비 38대가 투입됐고 소방공무원, 관계기관 등 220여 명이 참여해 재난현장 통합대응 체계 확립을 위

해 진행됐다. 황인 북부소방서장은 “다양해지는 재난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 실전과 같은 훈련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이종혁 광주지검장 “개혁 취지 공감하지만 수사 지연 가능성”

정준호 의원 공소기각 ‘검찰 실수’ 시교육청 채용비위 “절차 진행중”

이종혁 광주지검장은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수사 지연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25일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개혁과 공판중심주의를 비롯한 법조분위기와 관련해서 “절차와 제도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검장은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의원

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 “검찰의 실수가 맞다”고 말했다.

그는 “실수가 있었다, 작년에 제가 결재했던 사안”이라며 수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지 않고 정 의원을 재판에 넘겨 검찰청법 위반 논란을 일으킨 과실을 인정했다.

광주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10월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수사를 개시했던 검사가 공소까지 제기하는 실수를 해 올해 2월 광주지법으로부터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공소기각 약 한 달 만에 정 의원을 다시 기소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재기소와 관련해서는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광주지검 중요 사건 가운데 하나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위’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정선 교육감 측 준항고에 대응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철 기자

광주서 음주사고 낸 뒤 측정거부한 60대 입건

광주 도심에서 음주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6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25일 광주 북부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4시께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한 도로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

을 3차례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호 대기 중이던 70대 남성 B씨의 차량을 들이받았고, A씨에게 술 냄새가 났던 B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으나 음주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고로 B씨와 동승자가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우 기자

완도서 1.5톤 트럭 해상추락... 30대 운전자 숨져

전라남도 완도 해상에서 1.5톤 트럭이 바다로 추락하며 30대 남성이 사망해 해경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11분께 전남 완도 소안면 가학리항 인근에서 사람이 바다에 떠있다는 신고가 접수됐

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차량 인근 3m 해상에서 심정지 상태의 운전자 30대 남성 A씨를 발견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이후 마을 주민이 크레인을 동원해 차량을 인양했다. 완도해경은 A씨 차량 추락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정승우 기자

출소 4개월만 전자발찌 끊고 달아난 40대 징역 1년

지난 3월, 여수 대형마트서 도망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나 공개수배 끝에 붙잡힌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법선운판사는 25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

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교도소 출소 4개월 만에 절단기를 구입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낮 12시 51분께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동 한 대형마트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 공개수배됐다.

그는 택시와 버스 등을 이용해 이동했다가 이튿날 오전 경기 평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강도죄로 복역하고 출소에 보호관찰소의 전자감독을 받고 있었다.

정유철 기자

@jnilbo
 전남일보 인스타그램
 #호남대표미디어 #진일보 #전남일보_뉴스서비스